

‘출산에서 고용까지’ 광주시, 임신부 지원 팔걸어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신설...출산가정에 간호인력 지원

전국 최초 임신부 고용유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광주시가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부 돌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임신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5월부터는 출산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재가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공적 인프라를 기

반으로 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인력을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모유수유를 돕고 신생아 수면을 관리하는 등 산모·신생아 맞춤형서비스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한 지 90일 미만인 산모로, 1일 4시간씩 총 5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금은 개별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시는 이와 관련,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피아맘 건강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또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4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도포기하거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임신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전후 3개월간의 휴가기간에 사업주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금 200만 원과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대행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1일 8시간 모두 10일

동안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 지원 등에 나서는 서비스와 예약과 상담 기능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플랫폼 ‘광주아이키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순옥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가 있어 행복하고 임신부가 행복해야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태어나 가정에 웃음꽃이 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가가호호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

곡성읍 소재 만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곡성군이 2월부터 가가호호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를 실시하며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가가호호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는 곡성읍 소재 만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통해 치매 및 인지 저하로 진단 받은 대상자에게는 치매안심꾸러미를 지급한다. 가정에서도 다양한 뇌 자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치매 검진비, 치매치료 관리비, 맞춤형 사례

관리, 조조물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가가호호 기억력 검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치매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



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치매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곡성군치매안심센터(061-360-8994, 8992)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전남도,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대상

전남도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유일의 주거복지사업인 2021년 행복동지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사업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총 707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추진했다.

2018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20억여 원을 확보해 도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주택의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24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약 170여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 김경환기자

함평읍, ‘구석구석! 클린사업’ 추진

함평군 함평읍(읍장 김순관)이 읍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인 구석구석 클린사업을 실시한다.

함평읍은 관내 방역소독 전문업체인 영수환경과 협약을 맺고 매달 3~4가구씩 대상자를 선정해 맞춤형 방역 및 소독 봉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읍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등 위생환경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내·외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집안 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김 읍장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 주민이 청결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